

6

스사노오, 미마키 이리비코, 히미코시대의 한국

한국인은 북 몽골로이드 인종 집단(人種集團)에 속하며, 람스테트 학설(1926)이 나온 이래, 한국어는 알타이 계통 언어에 속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¹ 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던 초기 한국인의 토기는, 주둥이에 가장자리 장식이 붙은 형식이었으며, 이것이 기원전 4000년까지에는 빗살무늬(櫛文) 토기로 발전하고, 이어 기원전 1000년에 접어들 무렵부터 무문(無文) 토기로 옮겨간다. 사기(史記)

'몽골로이드 인종 집단은, 북방 인종, 북부 중국인, 티베트인, 그리고 동남아인으로 구성된다. 북방 몽골로이드 인종 집단은, 몽골인, 퉁구스인, 터키인, 만주인, 한국인, 일본인으로 구성된다. 알타이계 언어는, 터키어, 몽골어, 퉁구스어의 세가지 주요 분파로 나뉘어진다. 람스테트는, 한때 알타이 조어(祖語)라는 것이 있었고, 한국어는 바로 이 옛 알타이 조어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가설을 끈질기게 추구했다. 람스테트는 한국어로 부터, 겹겹이 쌓인 외부 영향 밑에 깔려 있는 고대 알타이 하부언어를 캐내어 이를 부활시켰으며, 그럼으로써 한국어가 알타이 계(系) 언어와 동일 계통임을 확립한 것이다. 밀러(1984)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어는 알타이계 언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학적 분류를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들어 보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반도 주민의 선사(先史)를 대(大)아시아의 선사에 연결시킬수 있는, 초기 인류역사의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말로써 표현 하려는 것이다.”

의 송미자세가(宋微子世家)편은, 은(殷)을 정복한 초기 주(周, 대략 기원전 1050년)의 무왕(武王)이, 상(商, 殷) 왕족의 덕망있는 후손 기자(箕子)를 조선왕에 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기원전 1000년 동안에, 중국에서 요동(遼東, 현재의 遼寧), 남만주, 그리고 한반도 북부로의, 문화적 영향과 사람들의 이동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인지는 모른다. 실로, 기원전 5세기까지는 철기(鐵器)문화가 분명히 한국에 전해지기 시작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한국에서 기원전 9세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구청동기 문화를 대체하게 되었다.

1991년, 한국의 고고학자들은 현재의 서울 근교(金浦郡과 一山)에서,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으로 기원전 2100과 2400년의 것으로 밝혀진 법씨를 발견했다. 엑커어트(1990: 10)에 의하면, “벼를 베기 위한 초승달 모양의 돌칼 사용과, 땅을 갈기위한 흙 파인 돌의 사용은, 한국에서 벼 재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들 언장들이 중국에서도 벼 재배에 사용 되었으므로, 벼 농사 자체가 중국에서 한국에 전해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파 모양의 동검(銅劍), 한쌍의 손잡이가 달린 거울, 몽골 초원(滿洲里, 海拉爾)으로 부터 란하의 동쪽(赤峰, 西遼河)을 지나 요동반도를 거쳐 한국 북서부의 압록강 주변뿐 아니라 충청남도 부여 지역(牙山の 남성리, 扶餘의 松菊里)에서까지 발견되는 세형동검(細形銅劍)들은, 분명히 스키타이-시베리아 기원이며, 중국 북부의 황하(黃河) 분지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이들과 비슷한 유물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² 그러므로 비록 고대 한국의 청동 제품이 부정할 수 없는 중국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고조선 문화의 본질은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기

²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 황하(黃河)유역의 한(漢) 민족들은 (날이 곡선인 곡인검이 아니라) 날이 곧은 한식검(漢式劍)을 사용했었다. 김원웅(1986: 348)에 의하면, 낙동강 하류에서 발견된 청동 제품들은 (1918년에 출토된 동물 모양의 허리띠 버클 두 개를 포함하여), 명백하게 대초원 지대의 스키타이 예술 전통에 속한다는 것이다. 팔레오-시베리아 문화에는, 곰에 대한 숭배가 들어 있다.

원을 두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김원용(1986: 345)은, 그 근원이 바로 “중국인이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으로 동이(東夷)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문화”였다고 지적한다.³

김원용(1986: 110)에 의하면, 요동 반도 서쪽에 있던 동이(東夷)는, 민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몽골인과 중국인의 혼합이었지만, 요동 동쪽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동이(東夷)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적은 한개의 문화로 구성된 예맥(濊貊)이라는 순수한 혈통의 동이였다는 것이다. 그들의 문화는 오르도스와 시베리아 대초원 예술의 요소를 간직하고 있었으며, 동검(銅劍)과 동경(銅鏡)은, 가장 뛰어난 두 가지 동이(東夷) 문화의 유물이었다. 한국의 청동기 문화 말기로부터 철기 문화 초기 사이의 암(岩)벽화가 1971년 울주(蔚州)에서 발견되었는데, 수많은 고기잡이꾼들이 기다란 배를 타고 고래와 돌고래를 잡고 있는 광경이 그려져 있었다. 김원용(1986: 170-174)은 이 암벽화를, 예맥-통구스 족이 한국에 가지고 들어온 시베리아 전통(기원전 약 700-200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원전 3세기가 시작될 무렵, 청동제 무기는 철제 무기로 바뀐다. 그래서 김원용(1986: 138)은, 기원전 1000-300년의 기간을 한국의 청동기 시대, 기원전 300-0년의 기간을 철기 시대로 간주한다. 무산(茂山) 지방의 호곡(虎谷)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는, 도끼, 낫, 초승달 모양의 손도끼, 칼, 낚시바늘 등을 포함한 수많은 초기 철기시대 제품이 들어 있다(HRI, 1976: 11-12, 참조). 쇠로 만든 쟁이, 쟁기날, 낫과 같은 농구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농업에 놀라운 변화를 일어난 것으로 믿어진다. 이러한 문화적 영향은 마침내 일본에 전해져서, 그 곳에 청동-철기 야요이(彌生)문화를 일

³샌섬(1931: 11)은, 한국에 널리 퍼진 청동 문화가 전적으로 중국의 것이 아니라, 스키타이-시베리아 문화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점이 특히 흥미롭다고 지적한다: “왜냐 하면, 그것은 극동 역사에서 하나의 중요한 현상 — 즉, 중국 한(漢)나라 선진 문명의 강력한 영향과 그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가 강한 개성을 그대로 간직했다는 것 — 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오키게 되는 것이다.

김원용(1986: 150-151)에 의하면, 고조선과 부여(夫餘) 지역에 있던 소위 「동쪽의 오랑캐」들을 통털어서, 옛 중국 사람들은 구아이모(濊貊)라고 불렀는데, 구아이모라는 것은 “한국말로 ‘곰’과 같은 뜻이며, 여기서 일본 말의 ‘구마(곰)’와 ‘가미(神)’라는 말도 나왔다”는 것이다. 한국의 첫 고대 왕국은 고조선(古朝鮮)이었다. 고조선의 창건자는 단군(檀君)이며, 그는 천제(天帝)의 왕자와 곰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상세히 전해지고 있다.⁴

고조선은 현재의 중국 허북성(河北省)과 요녕성(遼寧省) (비파 모양의 동검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옛날의 요동(遼東) 지방), 그리고 한반도 북서부를 차지하고 있었다(윤내현, 1986: 385, 참조). “조선(朝鮮)”이라는 말은, 기원전 7세기에 벌써 관자(管子)와 같은 역사적인 문서에 널리 기록되어 있었다. 기원전 7-8세기의 감산 고분과 기원전 5-7세기의 로우상 고분과 같은 고조선의 고분들이 요동 반도 남단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곰”이라는 말의 사용은 한국 남부 지방에도 퍼져서, 공주(公州, 구마나리)와 금강(錦江)과 같은 지명을 만들어 냈다. 중국인은 구아이모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몽골 고원 지대의 흉노(匈奴)와 근본이 같았기 때문이다. 만리장성(萬里長城)은, 흉노·선비(鮮卑)·고조선의 구아이모로부터 국경을 방위하기 위해, 진(秦)의 시황제(始皇帝, 기원전 247-210년) 때 완공되었다. 이 성은 감숙(甘肅) 남서쪽에서 몽골의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요동만(遼東灣)의 산해관(山海關)까지 [윤내현(1986)에 의하면 창리현(昌黎縣)의 갈석(碣石)까지] 1,400마일이나 벌어 나가 있다. 한서(漢書)에 의하면, 전한(前漢, 기원전 141-87년)의 무제(武帝)는 “흉노의 왼팔을 잘라내기 위해(匈奴之左臂), 고조선을 정복하고(東伐朝鮮) 군(郡)을 설치했다”는 것이다.⁽¹⁾

흉노는 기원전 3세기말에서, 서기 2세기까지 중앙 아시아(몽골과

⁴고대에는 부족의 우두머리를 단군(檀君) 또는 환웅(桓雄)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시베리아를 포함하여)의 대부분을 지배한 북 몽골로이드 인종의 유목민이었다. 한무제(漢武帝)가 말한 “흉노의 왼팔”은, 만주 남서부와 한국 북부에 있던 조선인이었다. 흉노와 조선인은 중국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위협적 존재였으며, 그들의 거듭된 침공은 북부 중국의 조그만 왕국들로 하여금 성을 쌓기 시작하게 해서, 급기야는 진(秦, 기원전 221-206년) 나라 때에 와서 중국 북부의 전 국경을 따라 만리장성 이란것이 나타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만리장성이 완성된 뒤에도, 중국에 대한 흉노와 조선인의 공격은, 한무제가 중앙 아시아와 조선의 상당 부분을 정복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계속되었다. 선비(鮮卑)는 원래 흉노의 동쪽(현재 내몽고의 일부)에 살고 있었으나, 흉노가 한(漢)에 패망한 후 중앙 아시아로 자리를 옮겨, 중국의 불구 대천의 적이 되었다.

고조선은 기원전 7세기경 부터 가죽, 천, 모피등의 제품을 중국에 수출했으며, 또 중국 상인들도 자주 고조선에 드나들게 되어, 중국 전국(戰國)시대(기원전 5세기와 3세기)의 철제 도전(刀錢)을 교환 수단으로 해서 교역을 했다고 한다. 그 같은 화폐는 청천강(淸川江) 북쪽 지역과 요동 지방에서 발견되고 있다. 많은 수의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細形銅劍), 섬세한 줄무늬가 새겨져 있고 위쪽에 끈을 꿰는 돌출부가 있는, 정교하게 닦은 원형 동경(銅鏡)등이, 고조선 지역의 발굴에서 출토되었다. 모두, 중국에서 발견된 공예품과는 아주 두드러지게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고조선 시대에 사용된 철제 도끼를 분석한 결과, 강도가 매우 높고, 훌륭하게 열처리 되었으며, 0.7퍼센트의 탄소가 들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HRI, 1976: 18-19, 참조).

엑커어트(1990: 12)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의 철기 시대 공예품에는, 중국화폐, 스키타이-시베리아 형식의 동물형 허리띠 버클, 새로운 형식의 회색 도기, 그리고 구리나 쇠를 주조하기 위한 거푸집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 쇠 재갈과 청동 요령 같은 장식 마구들이 마차의 차축, 덩개같은 부품과 함께 출토 되었으며, 이같은 금속 제품은 소수의 엘리트 층만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다. 날카로운 금속 무기로 무장하고, 말이나 마차를 탄 지배 엘리트가 어떻게 그들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강요했고, 또 손잡이가 여러개 달린 섬세한 무늬의 청동 거울 같은 물건들이, 그들의 권위의 상징으로서 어떤 구실을 했겠는가 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사기(史記)와 위략(魏略) 삼국지(三國志)에 인용된 위(魏)나라의 약사(約史)은, 기원전 194년과 180년 사이의 어느 때에, 위만(衛滿)이라는 사람이 연(燕, ?-기원전 222년) 나라로부터 조선으로 달아나, 준왕(準王)을 몰아내고 조선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서(漢書)는 다시, 전한(前漢, 기원전 141-87년)의 무제(武帝)가 [위만] 조선을 정복하고 우거왕(右渠王)을 살해한 뒤, 기원전 108-107년에 4군(郡)을 설치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셋은 기원전 75년 이전에 폐지되고, 낙랑군(樂浪郡)만 남아 4세기 동안(기원전 108년-서기 313년) 존속하면서, 중국 문명의 풍요로운 전초 기지 노릇을 했다. 낙랑군의 창설은 철과 주철법의 확산에 박차를 가했으며, 한국의 정치조직 발달도 가속시켰다.

한(漢)의 전초 기지로서의 낙랑은, 한국인에게 잘 조직된 정부의 모델이 된 것으로 믿어진다. 중국의 사서를 기초로, 헨소온(1971: 24)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왕망(王莽, 서기 23-220년)의 정치 공백기간에 따른 혼란기를 이용해서, 낙랑의 왕조(王調)라는 사람이 후한으로 부터 독립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서기 30년에 분쇄 되었으나, 그때부터 변경(邊境) 지역의 행정은 원주민 지도자들에게 이양되었고, 중국 행정 관리들은 철수했다.”

후한 말(서기 25-220년), 공손(公孫) 지배자들은, 요동(遼東) 지구에 독립된 영역을 설치했다. 서기 204년에서 220년 사이에, 공손 지배자들은 낙랑군을 접수하고, 그 남쪽에 대방군(帶方郡, 서기 206-313년)을 설치했다. 위(魏)가 서기 238년에 요동을 정복했을 때, 낙랑군과 대방군 역시 위의 손에 들어 갔다.

부여(夫餘, 기원전 ?-서기 346년)는 기원전 5세기를 전후로 어느 때인가 만주의 송화강(松花江) 분지에서 탄생했다. 위지(魏志)는

위략(魏略)을 인용하면서, 부여는 “동명(東明)”왕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말하고 있다.²⁾ 당시의 중국 사서들은, 부여가 창건 이래 다른 나라에 패한 적이 없고, 넓고 기름진 땅을 가진 부유한 나라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부여는,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며, 그 가족은 노예가 될 것이라는 조문이 포함된, 성문법을 가지고 있었다(HRI, 1976: 15, 참조). 서기 346년, 부여는 결국 선비(鮮卑)에게 정복을 당했는데, 이 전연(前燕, 서기 337-370년)이라는 선비국이 멸망하자, 부여는 고구려의 보호아래 들어오게 된다. 이기백(1984: 22)은 “만주 북동 지방에 우치 말갈(勿吉靺鞨)족이 융성하면서, 부여 왕실은 옛 영토에서 쫓겨나 고구려에 투항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부여가 출현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진(辰)이라는 동질적인 정치적 존재가 한강분지 남쪽에 나타났다. 한서(漢書)는, 기원전 109년으로 부터 몇해 전에, 전한(前漢)과 직접 교섭을 가지려 했던 진(辰)의 노력이, [위만]조선의 우거왕(右渠王)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다.³⁾ 사기(史記)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 시기에는, 벼 농사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상당히 앞선 금속 세공 기술을 보유한 많은 수의 피난민들이 고조선 지역에서 진(辰)으로 내려왔다(HRI, 1976: 16-17, 참조). 위만에게 쫓겨난 고조선의 준왕(準王)도,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진나라로 내려왔다고 한다. 위략(魏略)은, 서기 108년 [위만]조선이 멸망하기 직전, 한대 대신 노릇을 했던 역계경(歷谿卿)이, 2,000이 넘는 가구들을 거느리고 진나라로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⁴⁾ 서력 기원(西曆紀元)을 전후해서, 진의 영역은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의 삼한(三韓)왕국 연합으로 개편되었다.

후한서(後漢書)에 의하면, 54개국으로 구성된 마한(馬韓)은 서쪽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북으로는 낙랑(樂浪)과 국경을 접했고, 남으로는 왜(倭)와 접해 있었다고 한다. 12개국으로 구성된 진한(辰韓)은 동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북으로 예맥(濊貊)과 접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변진(弁辰, 弁韓)도 1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진한

남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남으로 왜(倭)와 접해 있었다. 마한이 가장 강했으며, 명목상 삼한(三韓) 전체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목지국(目支國)에서 군림하는 진왕(辰王)을 가지고 있었다. 삼한 왕의 조상들은 모두 마한 사람이었다고 한다.^{〈5〉〈8〉} 후한서(後漢書)는, 서기 44년 삼한의 누군가가 낙랑을 경유하여 후한의 광무제(光武帝, 재위 25-57년)에게 조공을 받쳤으며, 황제는 그를 낙랑의 관할 아래 있는 지방의 수장으로 임명 했다고 말한다. 진서(晉書)는, 진한과 변한 사람들도 마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말을 탈줄 알았다고 전하고 있다.^{〈6〉}

삼국사기에 의하면, 부여에서 온 고(高)주몽(朱蒙)이라는 사람이, 기원전 37년에 압록강 중류 통자강 분지의 중심지에 고구려를 세웠다고 한다. 고구려의 첫 수도 국내성(國內城)은, 압록강 북안에 있는 지금의 집안(集安)에 자리 잡고 있었다. 고구려 사람들은 주몽을 “동명왕(東明王)”이라고 불렀다. 위지(魏志)는, 고구려인이 부여인의 별종이며, 성격과 의상에 약간 다른 점은 있었으나, 언어와 습관에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위지에 의하면, 고구려왕은 서기 32년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에게 조공을 받쳤으며,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고구려의 통치자는 한(漢)으로부터 “왕”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7〉} 서기 49년 고구려는 중국 북부의 다이유안 까지 진출했으며, 서기 55년에는 요하(遼河) 서쪽 지역에 10개소의 성을 쌓았다고 한다(HRI, 1976: 23, 참조). 고구려 말은 몸집이 작아서 산을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 사람들은 강하고 전투에 능했으며, 이웃 나라들을 정복했다. 위지는, 서기 125년에서 167년 사이에, 고구려가 요동(遼東)에 침입하여 서안평(西安平)을 공격했으며, 가는 길에(于道上) 대방태수를 살해하고, 낙랑(樂浪) 태수의 처자를 사로 잡았다고 한다.^{〈7〉} 우리가 위지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인정 한다면, 대방과 낙랑은, 고구려로 부터 서안평이나 요동으로 가는 도중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부여와 고구려에서는, 3세기 초까지 일종의 선거 절차를 통해,

몇몇 왕족들 가운데서 왕을 선출했다. 엑커어트(1990: 20)에 의하면 “당시 왕위 계승의 특징은, 흔히 동생이 형을 승계하는 원칙을” 따랐다는 것이다. 집안(集安) 지역에서 발견된 무용총(대략 서기 400-450년)의 사냥 장면에서 볼수 있듯이, 고구려 사람들이 말을 타고 활을 잘 쏘기로 이름이 나 있었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중국의 북동 국경 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다.⁵

마한(馬韓)은 현재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방에 있었고, 진한(辰韓)은 경상도의 낙동강 동쪽에, 그리고 변한(弁韓)은 낙동강 서쪽에 있었다. 후한서에 의하면, 이 삼한(三韓) 지역에는 모두 78개국이었다. 이 대목에서, 후한서는 백제(百濟)가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라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이름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⁶

백제는 한강 주변 북부 마한 지역에 위치 했었으며,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기원전 18년 고구려를 떠나 남쪽으로 갈것을 결정했던, 온조(溫祚)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한다. 고구려와 백제의 지배자들은, 같은 창건 가문 —족, 주몽(朱蒙)의 집안— 에 속했으며, 본래 부여 땅 출신이었다. 삼국사기는 온조가 주몽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위서(魏書)와 주서(周書)는, 부여의 후손들이 백제를 세웠다고 기록한다.⁹ 사실, 백제 왕가의 성은 “부여(夫餘)” 또는 “여(餘)”로 기록되어 있다.⁸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 왕족은, 그들 역사 전체 기간에 걸쳐, 계속 동명왕묘(東明王廟)에 제사를 올렸다.¹¹ 백제 왕국도 고구려

⁵HRI (1976: 24)는 지적한다: “무술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권장 되었다. 해마다 3 월에는 전국적인 수렵 및 무술 경기대회가 개최 되었고, 이 경기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사람은 공식적으로 표창을 받고 관직에 임용 되었다.”

⁶주서(周書)·구당서(舊唐書)·신당서(新唐書)에서는, 백제왕의 성을 생략되지 않은 형태로 부여(夫餘)라고 쓰고 있다. 북서(北書)는 단축형인 여(餘)를 쓴다.¹⁰ 애스턴(NII: 18n)은 지적한다: “부여(夫餘) 혹은 푸유는 백제의 옛 이름이다. . . 통감(通鑑)에 의하면, 서기 538년에 남부여(南扶餘)가 백제의 공식 명칭으로 채택되었었다.”

와 마찬가지로 5부(部) 행정 구역으로 나뉘어졌었다(畿內爲五部).^{<12>} 김원용(1986: 140)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초기 백제 시대의 무덤 두 개가 1975년 서울 동부 석촌동(石村洞)에서 발굴되었다. 그것은 고구려의 장례 제도에서 유래하는 석총식(石塚式) 무덤으로,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갈라져 나온 일단의 정치적 피난민들에 의해 서울 지역에 세워졌다고 기록된 역사적 사건을 확인해 주고 있다.”

진한 지역의 사로국(斯盧國)으로부터 성장한 신라 왕국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박혁거세(朴赫居世)와 6개 부족 집단의 후손들에 의해 기원전 57년에 창건되었다.⁷ 일본서기에 의하면, 여신 아마테라스(天照)의 남동생 스사노오(須佐之男)는 신라에서 일본으로 건너왔다고 한다.

위지에 의하면, 후한 시대에 해당하는 서기 146-188년 기간에 이르러, 삼한의 부락 국가들이 한(漢)의 군현(즉 낙랑군)에 의해 통제되기에는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의 군현으로부터 한국으로 유입되었다고 한다(民多流入韓國). 서기 196-220년 기간중, 공손강(公孫康)은 대방군(帶方郡)을 설립했으나, 서기 237-239년 낙랑군과 함께 위(魏)에 접수되었다. 위지에 의하면, 위 나라 황제 명제(明帝)는 서기 231-239년 기간중, 낙랑군과 대방군으로 하여금, 삼한 부락국가 수장들에게 인수(印綬)를 나누어 주면서 개별적으로 삼한 각국과(또 히미코의 왜 와도) 외교관계를 수립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위지는 약 1,000명의 삼한 수장들이 위나라 황제로부터 관복과 관을 하사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14>} 이기백(1984: 36)은 이 계산된 선심 행위가, 삼한 국가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던 통일 노력을 방해하기 위해서 꾸며진 분열 정책이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삼국시대는 기원전 57년에서 서기 668년까지 계속된다. 고구려는 기원후 1세기 경에 이미 상당한 규모의 왕국을 이루고 있

⁷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는 신라를 “시라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사로국(斯盧國)을 지칭하는 것 같다.

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백제와 신라는 기원후 첫 3세기의 대부분 기간 동안, 이웃 부락 국가들의 정복을 통해, 실질적인 의미의 왕국으로서 기반을 다져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한국의 일부 역사가들은 이 기간(서기 0-300년)을, 원삼국(原三國) 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김원용(1986: 139)에 의하면, 철광석(鐵鑛石)이 풍부했던 한강과 낙동강 주변에서 철 생산과 쌀 농사가 빠른 속도로 발전된 것은, 서력 기원후 첫 삼세기 동안 이었다는 것이다.⁸

양서(梁書)에 의하면, 마한(馬韓)에는 54개국(國)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일 큰 것이 1만호, 작은 것은 수천 호(통털어서 10만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백제는 이들 마한 국가들중 하나였으며, 나중에 점점 강해져서 많은 이웃 나라들을 흡수했다. 주서(周書)는, 백제의 전신이 마한의 한 속국으로서, “구이(仇台)”라는 사람이 옛 대방 지역에 세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⁹ 수서(隋書)도 “구이”라는 “동명왕(東明王)”의 후손이, 옛 대방 땅에 백제 왕국을 세웠으며, 요동 태수 공손도(公孫度, 서기 190-204년)의 딸과 결혼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비슷한 이야기가 북서(北書)에도 실려 있다.¹⁷⁾ 그러나,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 기간(즉 서기 190-204년)은 백제 초고왕(肖古王, 재위 166-214년)의 치세와 일치한다.¹⁰

삼국사기(이병도 역주 하: 15-16)에 의하면, 백제의 창건자 온조왕(溫祚王)은 기원전 18년에 수도를 하남(河南) 위례성(慰禮城)에

⁸이 시대의 철제 공예품은 주로 백주철(白鑛鐵)로 만들어졌다. 강철 제품은 한(漢)나라 강철과 같은 해면철(海綿鐵)로 만들었다.

⁹양서(梁書)는 백제가 고구려와 함께 원래 요동(遼東)의 동쪽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위지(魏志)에 의하면, 대방(帶方)은 고구려에서 요동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 이 두 기록은, 백제가 처음 옛 대방 지역에서 창건되었다는 뜻의 주서(周書)·수서(隋書)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 같다.

¹⁰삼국사기에 의하면, 서기 286년 대방(帶方) 태수의 딸과 결혼한 것은 책계왕(責稽王, 재위 286-298년)이었으며, 대방을 도와 고구려의 공격을 격퇴시킨 것도 그였다.¹⁶⁾

정했으며, 이어 기원전 5년에 수도를 한수(漢水) 남쪽 한산(漢山) 기슭으로 옮겼다. 같은 해에 온조는 한강(漢江) 북서쪽에 성을 쌓고, 일단의 한성(漢城) 사람들은 그 곳에 정착시켰다. (한성이라는 이름은 서기 7년에도 언급되고 있다 - - 漢城人家馬生牛.) 백제의 국경은, 북으로는 패하(溟河), 남으로는 웅천(熊川), 서쪽으로는 대해(大海)에 이르고 있었다고 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서기 6년 백제의 온조왕이 마한(馬韓)을 맞대서 웅천책(熊川柵)을 축조하자, 마한왕은 사신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온조를 비난 했다고 한다: “[온조]왕이 처음 하수(河水)를 건너 발디딜 곳이 없자, 내가 동북 일백리 땅을 떼어 편히 거주하게 해주었으니, 왕을 대우함이 후했다고 할 것이다. 마땅히 이에 보답할 생각이 있어야 할 것 이어늘, 이제 나라가 완전하고, 백성이 [많이] 모여 들어 대적할 자가 없다하고, 크게 성지를 만들어 우리의 강역을 침범하니, 의리에 그러할 수가 있겠는가?”¹⁰⁾

위지에 기록된 본래의 부락국가 백제국(百濟國)이, 정확히 언제 한강 분지에 있는 마한 북부 여러 국가들을 합병하고 강력한 왕국으로 대두하게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¹¹⁾ 그러나 이기백(1984: 36-37)은 위지의 기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낙랑군과 대방군이 한강 지역에 대규모 공격을 했다고 하는 서기 246년경에는, 하나의 새로운 세력이 이미 이 지역에서 세력을 길러가고 있었다. 위군(魏軍)이 이곳을 공격한 목적도, 이 새로운 세력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을 훼방시켜 방지 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뒤따른 전투에서 대방 태수 궁준(弓遵)이 전사했다. 이 사건은 이 신생국가의 힘을 거증하는 것이다.”¹²⁾ 이 놀랍도록 강력한 통일체는, 분명

¹⁰⁾이병도(李丙燾, 삼국사기 하: 33n)에 의하면 백제가 부락국가에서 국민 국가로 전환한 것은 고이왕(재위 234-286년) 때 였다는 것이다.

¹²⁾궁준(弓遵)은 대방 태수였는데, 위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는 “건중교위(建中校尉) 제준(柸隄)으로 하여금 [서기 240년] 황제의 서한과 인수(印綬)를 가지고 왜(倭) 나라를 방문하도록 파견하였다. . . [이 사신은] 여왕 [히미코]를 접견했으며, 황제의 서한과 함께 금, 능라, 주단, 칼, 거울, 그밖의 물건을 선물로 전했다

히 마한이 아니라, 고이왕이 영도하는 새로운 연맹 왕국 백제였으며, 고이왕은 이 무렵 다른 분야 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약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

삼국사기(이병도 역주 하: 24-25)에 의하면 백제는 고이왕(재위 234-286년) 치세때, 적절한 기능별로 국사를 맡아 볼 육좌평(六佐平)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십육품(十六品)과 계급에 따른 복장의 색깔을 정했다고 한다. 삼국사기(전계서: 25)는 서기 262년에 고이왕이, 뇌물을 받은 관리와 남의 재물을 도둑질한 자는, 장물의 3배를 보상케하고 종신금고에 처했다고 한다. 또 고이왕이 화려하고 위풍이 당당한 복장을 입고 군주로서의 정무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⁰⁾

초기 백제는 봉건제후 제도를 운영하고, 왕족이나 귀족의 구성원을 지방의 태수나 왕에 임명하였다. 백제에는 8대 귀족 성씨가 있었다. 진서(晉書, CCI: 318)에 의하면, 마한(馬韓)지역의 어떤 나라가 서기 277년(고이왕 44년), 280년, 281년(고이왕 48년), 286년, 290년에, 서진(西晉) 조정에 사절을 보내 조공을 받쳤다고 한다. 이 나라가 아마도 백제왕국 이었던 것 같다.²¹⁾ 삼국사기는 백제의 분서왕(汾西王, 재위 298-304년)이, 서기 304년 2월 몰래 군대를 보내어 낙랑의 서현(西縣)을 침공하고 점령했으나, 그 해 10월 낙랑 태수가 보낸 자객의 손에 암살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²²⁾

위서(魏書, CCI: 508-509)에 의하면, 백제왕 여경(餘慶, 蓋鹵王, 재위 455-475년)이 북위(北魏) 조정에 글을 보내 말하기를: 백제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으며(源出夫餘), 따라서 옛날에는(先世之世) 두 나라가 돈독한 우호관계를 유지했었으나, 고구려의 고국원왕(故國原王, 재위 331-371년)은 백제를 침공했고, 근초고왕(近肖古王)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 후 고구려는 감히 남쪽을 침범하지 못했으나, 이윽고 더 강력해진 고구려는 끊임없이 백제를 침공하기 시작했다고 한다.²³⁾ 이 글은, 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 재위 346-

다. ¹⁹⁾ 프노다와 구드리치(1951: 15) 참조.

375년)치세 이전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같은 부여 출신이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 했었다는 것과, 그후 그들 사이는 증폭되는 적개심 때문에 우정이 깨진것을 보여준다.

역커어트(1990: 25)는 지적한다: “근초고왕은. . . 학자 고흥(高興)에게 백제의 역사서인 서기(書記)의 편찬을 [명령했으며]. . . 그의 손자는 (서기 384년에) 불교를 국교로 채택했다. . .”¹³

신라는 주변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 연맹체를 형성 함으로서, [진한 지역 12나라 중의 하나인] 사로(斯盧)에서 발전해 나왔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신라에서는 기원전 57년부터 서기 57년까지는 박(朴)씨 집안에서, 서기 57년부터 356년까지는 (서기 262-284년을 제외하고) 박·석(昔) 양씨 집안에서, 그 후는 김(金)씨 집안에서 임금을 뽑았다고 한다. 위지(魏志)에 의하면, 진한(辰韓) 지역의 12국은 진왕(辰王)에 속한다고 했는데(CCI: 195 참조), 이것은 거의 틀림없이 석(昔)씨 집안의 신라왕을 의미하는 것 같다.

김씨 집안의 첫 신라왕은 미추(味鄒, 재위 262-284년)였다. 고고학자들(김원용, 1986: 142)은 미추왕의 무덤이 눌지왕(訥祗王, 재위 417-458년)때 조그만 흙무덤에서 현재의 크기로 확장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김씨 집안은 자신들의 조상을 영광스럽게 만들기엔 충분한 권력과 권위를 획득했던 것이다. 삼국사기는 눌지왕이 실제로 서기 435년에, 조상의 묘의 재건을 명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가야(伽倻)연맹은, 변한(弁韓, 弁辰)의 12개 성읍(城邑)국가 영역에서 나왔다. 위지는 그 지역의 12나라가, 저마다 왕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弁辰十二國亦有王).⁽¹³⁾ 현재의 김해(金海) 지방에 있던 가야는 초대왕이 수로(首露)였었는데, 본가야(本伽倻, 서기 42-532년)로 발전했고, 한편 고령(高靈)에 있던 나라는 대가야(大伽倻, 서기 42-562년)가 되었다. 이 두 나라와 낙동강 하류 지역에 있던 다른 변한 국가들이 가야 연맹을 형성했다.

¹³삼국사기(이병도 역주 하: 33)에 의하면, 서기 384년 호승(胡僧) 마라난타(摩羅難陀)가 동진(東晉)으로 부터 건너 와서, 정식으로 백제에 불교를 전했다고 한다.

이기백(1984: 41)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낙동강변에 위치한 가야(특히 강하구에 있던 본가야)는 정력적으로 해운 활동에 종사했으며, 반도의 서쪽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는 중국의 낙랑군 및 대방군과, 동쪽 해안을 따라 북쪽 으로는 예(濊)사람들과, 그리고 남쪽 으로는 일본의 왜(倭)와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다. . . .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 가야를 거쳐 왜군(倭軍)을 끌어 들이자, 신라와 가야는 날카롭게 대립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결국 고구려 광개토왕(廣開土王)으로 하여금 신라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게 만들었다(서기 400년).”

위지는, 가야 나라들이 다른 삼한 국가들뿐 아니라 낙랑, 대방, 왜 등에도 철을 수출 했으며, 중국인이 돈을 사용 했듯이, 시장 거래를 할때 쇳덩이를 사용했다고 한다.⁽²⁴⁾ 남제서(南齊書)는, 서기 479년에 가라국(加羅國)의 왕이 공물을 보내고, “보국 장군(輔國將軍)”과 “본국왕(本國王)”이란 칭호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⁵⁾

고령의 뒤쪽 언덕에 있는 가야의 고분 한 기가 1977년에 발굴되어, 4개의 주 묘실과, 함께 묻어버린 비운의 노예들을 위한 11개의 조그만 석실들이 나타났다. 김원용(1986: 193)은 “신라 에서도 순사(殉死)의 관행은 있었으나, 그 규모가 가야 국가들 만큼 크지는 않았으며, 가야왕들의 부와 권력은, 이 발견으로 재추정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김원용(1986: 193)은 계속한다: “이와 같은 장례 관행은, 개개의 가야국 크기가 비교적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족의 부와 권력은 상당 했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며, 그것은 아마도 풍부한 철광석과 벼 농사에 적합한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¹⁴

1991년 3월, 한국 고고학자들은 경남 의창(義昌)의 다호리(茶戶里)에 있는 가야 고분에서, 방사선 탄소 검증결과 기원전 1세기의

¹⁴ “비어즐리(1955)에 의하면, “지금까지 일본에서 조사된 무덤 가운데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매장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대량 매장 이란 것은 들어 본 적도 없다”고 한다. 또 노예와 부하들을 함께 매장하는 고대 풍습은 “스이닌(垂仁)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고 하며, 그의 금지 명령은 자주 인용되고 있다.”

것으로 측정되는 옷칠을한 화살통 한개, 길이 23cm 가량의 붓 다섯 자루, 지우개에 해당하는 삭도(削刀) 등을 발견했다.

중국의 위(魏, 서기 220-265년)가 멸망한 후, 서진(西晉)이 낙랑과 대방을 포함한 위의 영토를 승계했다. 그러나 4세기로 접어들기 전에, 선비(鮮卑)의 모용족(慕容族)이 몽골로 부터 요하(遼河) 서쪽 지역으로 진출하여, 서진과 동쪽에 있는 영토 사이의 육로를 차단하고 전연(前燕, 서기 337-370년)을 수립했다. 이 사태를 이용하여 고구려는 서기 313년, 고립된 낙랑군에서 중국 사람들을 몰아내 버렸다. 대방도 팽창하는 백제에 의해 타도 되었다. 백제는 수도 한성(漢城, 현재의 서울 지역)이 있는 한강 주변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¹⁵

라이샤워(1937: 15)에 의하면, “낙랑과 대방은 서기 313년, 역사에서 탈락하고 만다. 그러나 그들은 목적을 달성했다. 왜냐하면, 한국땅에 중국 문명을 받아 들일수 있는 창구가 생겼었고, 이 둘 두개의 군 정부는 한국 남부와 만주에서 일어난 왕국들에게, 모범이 될만한 관료제도를 전해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김원용(1986: 348)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낙랑군의 멸망은. . . 고도로 발달한 낙랑 예술이 지방 토착 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촉진 시켰다. 청동과 철은 그 당시 이미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으나, 금·은 채광법의 도입은, 이 중국 식민지의 멸망과 때를 같이 한것 같이 보인다.”

¹⁵삼국사기(이병도 역주, 하: 48, 45, 16)는, 백제의 창건자 온조왕(溫祚王)이 수도를 하남(河南) 위례성(慰禮城)에서 한산(漢山) 기슭의 한수(漢水) 남쪽으로 옮기고, 한강 북서 지역에 성을 쌓아, 약간의 한성 주민들을 그 곳에 정착 시켰다(分漢城民); 아신왕(阿莘王, 재위 392-405년)이 한성별궁(漢城別宮)에서 태어났다; 고구려의 장수왕(長壽王)이 서기 475년 백제의 왕도 한성(王都漢城)을 포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삼국사기(전계서: 235)는 또 기록한다: “고구려 동명왕(東明王)의 셋째 아들인 온조는, 기원전 18년 위례성(慰禮城)에 수도를 정했는데, 389년 뒤 [서기 370년에], 백제 제13대 왕 근초고(近肖古) 때 수도는 다시 한성으로 옮겨졌다(歷三百八十九年, 至十三世近肖古王. . . 都漢城).”